

창간
1981년 9월 14일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제991호
2026년 9월 7일

발행인 금기창 편집인 윤영남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중입자치료, 두경부암·육종·재발성 직장암까지 확대

고정형 1대 회전형 2대 가동 단일 기관 세계 최초이자 유일 하루 40명·연1000명치료목표

연세암병원이 최근 두경부암과 육종, 재발성 직장암 3개 암종에 대해 중입자치료 적응증을 확대했다.

2023년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중입자치료를 시작한 연세암병원은 회전형치료기 1호기를 가동하며 체장암과 간암, 폐암으로 치료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회전형치료기 2호기 운임을 시작하며 두경부암과 육종, 재발성 대장암 등 3개 암종을 추가했다.

고정형치료기 1대와 회전형치료기 2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세암병원이 세계 최초이며, 유일하다.

중입자치료기는 조사 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치료기와 환자 주위를 360도 회전하는 회전형치료기로 나뉜다. 회전형치료기는 종양 위치와 모양, 주변 정상 장기 분포에 따라 조사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 정밀한 치

료가 가능하다.

연세암병원은 중입자치료기 3대를 완전 가동하며, 하루 약 40명, 연간 1000명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장기 밀집한 두경부 기능 보존하며 암 제거

두경부암은 구강, 인두, 후두, 비강과 부비동, 침샘 등에서 발생한다.

중입자치료가 가능한 두경부암 종류는 기존 방사선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비부비동, 뇌기저부, 침샘 등에 발생해 수술이 어려운 비편평세포암으로 선양낭성암종 및 점막악성흑색종이 대표적이다.

중입자치료는 뇌나 시신경, 척수, 침샘과 같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며 암 조직을 파괴한다.

일본의 대규모 다기관 연구(J-CROS)에 따르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5년 국소제어율은 선양낭성암종 68%, 점막멜라닌종 84%, 점액표피모양암 95%에 달한다. 5년 생존율 역시 70~80% 수준으로 기존 방사선치료 보다 높았다.

수술 어려운 육종 5년 생존율 73% 기록하기도

육종은 뼈나 근육, 지방, 혈관 등 몸을 지지하고 연결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종양이 척추, 골반, 천골, 두개저 등 수술이 어려운 부위에 발생하거나 주요 신경과 혈관을 침범하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일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병원)와 군마대학병원 등이 발표한 임상연구에서는 절제 불가능한 골육종에서 중입자치료 후 5년 국소제어율은 74%, 5년 생존율은 73%에 달했다. 부작용 대부분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연부조직육종에서도 5년 국소제어율이 65~69%로, 기존 X선 방사선치료(28~73%)에 비해 안정적인 성적을 보였고, 중증 부작용 발생률은 15% 미만으로 낮았다.

치료법 적은 재발성 직장암 종양세포 효과적으로 파괴

재발성 직장암은 근치적 절제 후에 골반 안에서 종양이 재발하는 경우다.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방사선치



료를 고려하지만, 골반 안에 소장과 대장이 밀접해 충분한 선량을 조사하기 어렵다. 이미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누적 선량에 대한 부담도 크다.

중입자치료는 재발성 직장암에 고선량을 집중하면서 장, 방광, 신경 등 주변 정상 조직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은 낮출 수 있고, 회전형치료기 활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게다가 높은 생물학적 효과로 기존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종양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일본의 대규모 다기관 연구(J-CROS)에 따르면 수술이 어려운 재발성 직장암 환자에게 중입자치료를 시행한 결과 3년 국소제어율이 93%,

5년 국소제어율이 88%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3년 생존율이 73%로 나타났다. 연세암병원과 QST의 공동연구 결과, 이전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재발성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입자치료가 X선 재조사 대비 국소재발, 사망, 장기부작용을 모두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금용섭 중입자치료센터장은 "주요 장기가 밀집해 수술이 어렵거나 기존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난치성 종양의 경우, 정상 조직 손상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회전형치료기 2호기 전면 가동을 통해 방사선 맞춤형 치료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이 없는 삼중음성유방암 백금계열 항암제 병용이 생존율 높여



손 주혁



김 건민

5년 무사건 생존율 7.2%p 증가 美, 진료 가이드라인 채택

의대 손주혁·김건민 교수(내과)가 전이 없는 2~3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항암제에 백금 계열 항암제인 카보플라틴을 병용 투여했을 때 환자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폴로이드학회지(Annals of Oncology, IF 80.4)' 최신호에 실렸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암세포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와 HER2 단백질이 모두 없는 유방암이다. 2~3기 삼중음성유

방암은 최근 기준 면역치료제 키트루다와 함께 카보플라틴을 포함한 세포독성 항암제를 수술 전후 사용하는 것이 표준치료지만, 그동안 카보플라틴 사용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연구팀은 국내 22개 의료기관과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삼중음성유방암 2~3기 환자 868명을 전향적으로 등록한 대규모 다기관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대한항암요법연구회, KCSG BR 15-1연구).

연구팀은 수술 전과 후로 기존의 항암제(안트라사이클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탁산)를 투여받은 A군(434명)과 이에 더해 백금 계열 항암제인 '카보플라틴(carboplatin)'을 함께 투여받은 B군(434명)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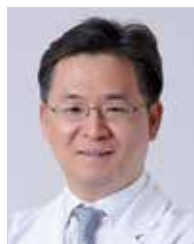
연구 결과, 추적 관찰 기간 약 57개월(중앙값) 동안 치료 중 악화, 재발, 사망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무사건 생존율이 B군이 82.3%로 A군 75.1% 비해 7.2%p 높았다.

한편, 연구팀이 미국임상암학회에서 발표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진료 가이드라인에 채택됐다.

유전성 망막질환 원인 예측 AI 개발



한 진우



변 석호



이 준원

안저사진과 OCT로 원인 유전자 예측 '상위 5개 후보' 예측 정확도 90.4%

의대 한진우·변석호(안과), 이준원(강남 안과) 교수는 안저사진과 빛간섭단층촬영(OCT) 영상만으로 유전성 망막질환 원인 유전자를 예측하는 AI 시스템(Retina4IRD)을 개발하고 해당 시스템 유용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 IF 52.5)'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안과 진료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안저사진과 OCT 영상만으로 원인 유전자를 예측하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Retina4IRD'를 개발했다. 한국·중국·폴란드 3개국 9개 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 1843명(3376안)의 안저사진과 OCT 영상, 나이·성별·가족력·발병 연령·유병기간 등 임상정보를 학습시켜 해당 모델을 구축했다. Retina4IRD는 치료법이 있거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유전자를 포함해 총 17개 유전자 범주에 대해 발생 가능성

이 높은 순으로 후보 유전자를 제시한다.

연구팀은 AI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실제 원인 유전자가 상위 5개 후보 안에 포함되는 'TOP-5' 정확도가 90.4%로 확인됐다.

실제 임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 285명을 AI 보조 진단군(148명)과 전문의 단독 진단군(147명)으로 무작위 배정된 뒤, 이후 시행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진단 정확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1차 평가변수인 TOP-5 유전자 예측 정확도는 AI 보조군이 88.5%로 전문의 단독군 67.3%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 하나를 맞히는 'TOP-1' 정확도 역시 AI 보조군은 37.8%로 전문의 단독군 22.4% 보다 높았다.

세브란스병원, 한국웰니스지수 종합병원 부문 20년 연속 1위

환자중심 의료문화 선도 중입자·로봇 등 첨단의료 실현

세브란스병원이 2일 한국웰니스지수 종합병원 부문에서 2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수상으로 세브란스병원은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건강한 삶과 행복까지 생각하는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1885년부터 이어온 역사와 정통성, 환자를 최우선 가치

로 삼아 지속해 온 의료 혁신이 국민 신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브란스병원은 진료 대기와 이동 동선을 개선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해 왔다.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치료 이후의 삶까지 살피며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첨단 치료 분야 혁신도 지속됐다. 2023년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중입자치료를 시작한 뒤 2024년에는 치료 범위를 췌장암·간암·폐암으로, 올해에는 두경부암, 육종, 재발성 직장암까지 넓혔다. 또한 2005년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후 올해 단일기관 세계 최초로 5만례를 달성하며 보유했던 고난도 수술 정밀성과 안전성을 증명했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20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환자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과 더 나은 웰니스를 위해 혁신하

며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D)에서 올해부터 개명한 한국웰니스지수(Wellness)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HESSS모델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측정해 시상한다.

HESSS모델은 기관의 건강성(Health),

환경성(Environment), 안정성(Safety), 충족성(Satisfaction), 사회성(Social Responsibility)을 평가하는 척도다.



용인, 간경화 환자 첫 생체 간이식 성공

아내가 남편에게 간 일부 기증 수혜자·공여자 안정적 회복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첫 생체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이번 간이식 수술 성공에 따라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경기 남부 지역 중증 이식환자 수술 역량을 구축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올해 초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위·식도정맥류 출혈이 반복되던 이 씨(58세·남)에게 배우자 간 일부를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이 씨는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해 현재까지 월 1회 경과 관찰용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B형간염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던 이 씨는 간경화로 인한 간문맥 고혈압으로 반복된 위·식도정맥류 출혈을 겪었다. 수차례 위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받았지만, 출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간이식을 비롯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씨의 간과 신장 기능이 비교적 양호해 뇌사자 간이식을 받기 어려웠고, 배우자인 윤 씨(56세·여) 간 일부 기증으로 생체 간이식을 시행했다.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 이식외과, 간담체외과 의료진은 생체 간이식 적합성 평가를 위해 세브란스병원 간이식팀과 이식 가능성을 논의했고, 윤 씨의 간 이식을 결정했다.

생체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과 달리, 건강한 공여자 간 일부를 절제해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다. 공여자와 수혜자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크기가 작은 혈관과 담도를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술기와 진료과 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씨 경우 간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에 큰 혈전이 동반돼 수술 난도가 더욱 높았다.

의대 임승혁 교수(용인 이식외과)는 간경화로 손상된 이 씨 간을 절제한 뒤 혈전을 함께 제거하고, 공여자 간을 이식해 혈관과 담도 문합을 실시했다. 공여자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한 우측 간 절제술로, 의대 노승윤 교수(용인 간담체외과)가 집도했



다. 의대 임태섭 교수(용인 소화기내과)는 수술에 앞서 반복되는 정맥류 출혈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며 장기적인 치료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수술 이후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 결과, 반복적인 출혈 원인이었던 식도와 위 정맥류는 크게 호전됐다. 혈액검사와 전신 상태도 양호했다. 윤 씨 역시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회복했다.

임승혁 교수는 “이번 생체 간이식

수술은 반복적인 정맥류 출혈과 주요 혈관 내 혈전이 동반돼 수술 전 치료부터 이식 수술까지 세심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했다”며 “여러 진료과와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 덕분에 고난도 생체 간이식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승윤 교수는 “이제 생체 간이식 첫걸음을 뗀 만큼 각 진료과 역량을 모아 간이식 프로그램을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맞춤형 수련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체계 구축 마일스톤 평가 도입

세브란스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돼 수련체계를 개선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사업에서 인턴 수련과 함께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7개 전문과목이 선정됐으며, 올해 말까지 총 3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세브란스병원은 사업을 통해 기존 도제식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역량기반 의학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을 접목한 새로운 수련체계를 운영한다. 단순히 수련기간을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공의 개개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이번에 마련한 수련체계의 핵심은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의 중심으로 한 지도체계 구축이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품질, 수련환경을 총괄하고,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전공의를 직접 지도하며 교육과 평가를 담당한다. 특히 인턴은 교육전담지도전문의 1명이 최대 2명까지 담당하도록 해 보다 밀착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병력 청취와 신체진찰, 처치, 수술 보조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전공의를 직접 지도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병동, 수술실 등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이뤄



지는 밀착 수련지도를 통해 임상 역량을 높이고, 전공의가 작성한 수련기록과 술기 수행 내용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진료역량, 연구·학술, 환자 중심, 리더십·성장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마일스톤

(Milestone) 평가를 실시한다. 각 영역별 역량을 5단계로 나눠 평가하고 강점과 개선점을 함께 제시해 개인별 보완 계획을 수립한다. 월 1회 이상 개별 면담을 통해 수련 목표와 만족도, 고충, 진로 등을 상담하고, 지속적인 피드백도 제공한다.

의대 교원퇴임식 진행

의과대학은 지난달 19일 윤인배 총에서 교원퇴임식을 개최하고 오랜 시간 교육과 연구, 진료에 헌신해 온 교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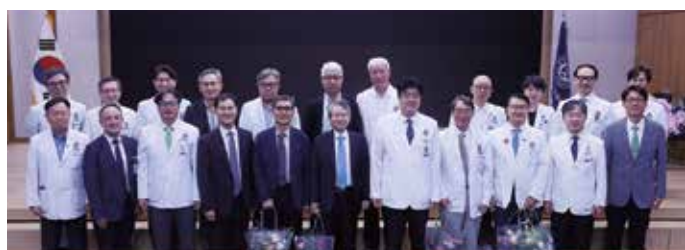
이날 퇴임식에서는 강신욱(내과학), 김동욱(생리학), 김영태(산부인

과학), 김찬형(정신과학), 최영득(비뇨의학) 교수 퇴임을 기념했다. 다섯 교수는 각 분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힘쓰며 의과대학과 의료원의 발전에 함께해 왔다.

행사는 정영철 교무부학장 사회로

시작됐다. 양인철 교목실장 기도에 이어 금기창 의료원장과 이재범 의대 총동문회장이 축사를 전하며 퇴임교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최재영 의대학장은 인사말과 함께 퇴임교원들을 소개했다.

이어 다섯 명의 퇴임교수가 교정과 의료 현장에서 함께해 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오랜 기간 의과대학 교육과 연구, 세



브란스 진료 현장을 지켜온 교수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퇴임식은 양인철 교목실장 축도에 이어 퇴임교원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마무리됐다.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개발 최적 동물모델 규명



김 상 우



이 상 보



김 원 주



김 준 호

세계 첫 인간 설치류 전사체 분석 질환 유형 맞는 동물모델 찾아

의대 김상우 교수·이상보 연구원(의생명시스템정보학), 김원주 교수·김준

호 임상강사(신경과학) 연구팀이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개발을 위해 환자 질환 유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동물모델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모델에 따라 신약 개발 과정의 효율과 성

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의대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 신진 의과학자들이 주도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18.1)'에 게재됐다. 난치성 뇌전증은 약으로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다. 새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 동물을 이

용한 전임상 연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동물모델이 실제 환자 질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연구자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인간 뇌 조직 샘플 694개와 설치류(마우스, 흰 마우스) 모델 뇌 조직 샘플 362개를 통합한 대규모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종, 뇌전증 발생 유도 방법, 뇌전증 유도 약물 투여 경로, 뇌전증이 뇌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살핀 편측성, 나이, 질환 단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동물모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시아랩(SIALAP)' 체계를 만들었다.

분석 결과,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안에 뇌전증 유도 물질인 카이

네이트를 주입한 마우스 모델이 해마 신경세포가 손상된 해마경화증 동반 난치성 뇌전증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재현했다. 또한, 해마에 전기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해 뇌전증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은 해마경화증이 없는 뇌전증 환자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동물모델이 각각 다른 형태의 뇌전증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분자수준에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성과 뒤에는 의대가 지원하는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이 있었다. 사업은 의사들이 수련을 거친 뒤의 과학 연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연구에 참여한 이상보 연구원과 김준호 임상강사가 사업단 출신이다.

상부요로상피세포암, 침윤 깊이 파악 위한 IVUS 임상 착수



함 원 식



박 지 수

혈관 내 초음파 유효성 확인 환자 맞춤형 치료 기준 마련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지원사업 부문에 선정돼 2029년까지

의대 함원식·박지수 교수(비뇨의학) 연구팀이 상부요로상피세포암에서 암 침윤 깊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혈관 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지원사업 부문에 선정돼 2029년까지

3년간 12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상부요로상피세포암은 신우와 요관에 발생하는데, 신우와 요관은 공간이 좁아 암의 침윤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와 CT, MRI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한다. 그럼에도 정확한 침윤 깊이를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상부요로상피세포암은 침윤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다. 암이 표면에 국한되면 신장을 보존하는 내시경 치

료가 가능하지만,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 신장과 요관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시행한다.

연구팀은 IVUS를 통해 상부요로상피암 침윤 깊이를 판별한다. IVUS는 가느다란 초음파 카테터를 삽입해 조직 단면을 360도로 확인하며 암의 침윤 깊이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상부요로상피암 환자의 IVUS 검사에서 평가한 침윤 깊이와 병리 검사에서 얼마나 일치하는지, 실

제 치료계획에 미치는 여부 등을 분석한다.

연구팀은 앞선 연구에서 IVUS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임상 시험 승인과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함원식 교수는 "상부요로상피암은 치료 전에 암의 침윤 깊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 신장을 보존할지, 근치적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시행할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 치료 의사 결정을 고도화하고, 환자 맞춤형 표준 치료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치대,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발

치과대학이 캠퍼스아시아 한중일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파견과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시아 치의학 분야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치대는 최근 일본 도호쿠대학교에 학부생 4명, 태국 출라롱콘대학교에 학부생 2명을 각각 파견했다. 학생들

은 현지 대학에서 교수 특강과 실습에 참여하고, 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을 견학하며 각국 치의학 교육과 임상 환경을 직접 경험했다. 이를 통해 해외 치의학 교육·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적 역량을 키웠다.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는 일본 도

호쿠대학교 학부생 1명과 중국 북경대학교 대학원생 2명을 초청해 단기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초청 학생들은 교수진 전공별 특강과 치과대학 병원 임상 참관을 통해 연세 치의학 교육·진료 현장을 경험하고,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치의학 관련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오스탐임플란트를 방문해 국내 치과

기자재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실습에 참여했다. 치의학 교육과 임상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상까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정영수 치대학장은 "다양한 교육·연구 교류를 통해 한·중·일 및 아세안 지역 치과대학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고, 학생들이 여러 국가 치의학 교육과 임상 현장을 경험하며 국제적 역량을 갖춘 치의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학생캠프 개최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이 최근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학생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의대와 원주의대 학생 24명을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교수진과 전공의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학생들에게 희귀질환 진료와 정밀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아청소년과의 다양한 진료 영역과 역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정밀의료 발전과 전망, 희귀·유전질환 진단과 치료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다. 이어 소아신장과, 소아내분비과, 소아소화기영양과, 소아혈액종양과, 소아알레르기과 등에서 실제 진료하는 희귀질환 사례를 소개하며 진단과 치료 과정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소아신경과와 소아중환자의학과, 소아 완화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희귀질환 환자 삶과 질환에 대해 함께 들어 다보며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는 의료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이영목 주임교수는 "학생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 전문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교류의 기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졸업식 '의료인 70명 첫걸음' 축하

의과대학이 지난달 24일 은명대강당에서 졸업식을 갖고 70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은 양인철 교목실장 사회로 찬송과 기도, 성경 봉독에 이어 최재영 의대학장 졸업식사와 이용주 의대 여동창회장 축하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학사보고와 함께 졸업생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최우등졸업상은 이서현 학생이 받았으며, 신수영·최형운 학생이 우등졸업상을 수상했다. 이서현 학생은 세브란스상(의과대학 총동문회장상)도 받았다.

의과대학장상은 연구상 김윤서, 창의상 김지우, 봉사상 조현준, 협동상 김종주, 세우상 장현준 학생에게 각각 돌아갔다. 대한의사협회장상



은 서동률, KAMC이사장상은 홍민기 학생이 수상했다.

졸업생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교수상(像)에서는 기초부문 홍순원 교수(강남 병리과), 임상부문 안석균 교수(정신과학과)가 선정됐다.

이어 졸업생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의료인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졸업식은 의과대학 교가 제창과 축도,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의료원-KT, 의료 데이터 고도화 협력

의료 데이터 표준화 확대 AI 기반 의료서비스 적용

의료원과KT는 지난달 3일 교수회의실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금기창 의료원장과 김봉균 KT Enterprise 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의료 영상, 연구 데이터 등 병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 데이터는 형태와 구조가 다양해 바로 AI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표준화·구조화하고, AI 학습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이 의료기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반 확대 ▲데이터 활용 인프라 고도화 ▲AI 기반 의료 서비스 적용 방안 연구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과업을 수행한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분석·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의료 AI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 토대를 마련한다.

의료원은 실제 의료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데이터 활용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의료진 중심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KT는 AX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 데이터를 AI가 분석·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료의 미래 경쟁력은 데이터와 AI 활용 역량에 달려



있다”며 “의료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진료·연구·교육 전 영역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 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 2026 상반기 의생명중점혁신연구단 정기 세미나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2026 상반기 의생명중점혁신연구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의생명중점혁신연구단 내 핵심연구그룹인 희귀난치 고형암, 정밀면역·감염진단 코어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연구중심병원 인프라와 함께 연구 지원 제도, 기초 연구 사례, 연구 성과 및 현황 등 원내 연구 역량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강신애 의과학연구처 강남부처장이 좌장(사진)을 맡은 1부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연구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첨단기술 활용과 사업화 지원 방안이 다뤄졌다. 의대 김지훈 교수(강남 방사선종양학과)가 AI 기술 허브 인프라 및 연구 지원 로드맵을 발표

했으며, 의대 장원석 교수(의생명과학부)가 의료기기 사업화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채현욱 의대 강남부처장이 좌장을 맡은 2부 세션에서는 김락균 의대 연구정책개발부장이 개편된 연구 지원 제도를 안내했으며, 의대 김형범 교수(약리학)가 암 관련 유전자 변이의 고처리량 기능 평가(High-through-

put Functional Evaluation)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인 3부는 의대 정준 교수(강남 유방외과)가 좌장을 맡았다. 의대 장성일 교수(강남 소화기내과)의 희소세포 검체 기반 체단도암 정밀진단 플랫폼 구축, 의대 권오찬 교수(강남

류마티스내과)의 강직성 척추염 연구, 의대 김도균 교수(강남 진단검사의학과)의 감염진단 미생물 유전체 분석 연구가 다뤄졌다.



일반직 정년 명에 퇴직

일반직 직원들이 정년 의료원을 떠나 인생 2막에 나선다.

의료원은 지난달 20일 은평대강당에서 정년 및 명예 퇴직자와 가족,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직 퇴임식이 열렸다.

퇴직자는 아래와 같다.

정년

- 김성찬 팀장(부장)(연세암병원 연세암) 원무팀, 33년 4개월
- 부기원 팀장(부장)(사무처 실험과제, 32년 2개월)
- 송효숙 파트장(차장)(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약무팀 특수조제파트, 38년 0개월)
- 손영숙 파트장(차장)(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 의학팀 미생물파트, 35년 11개월)
- 박근호 파트장(차장)(어린이병원 진료부 경영지원팀 원무파트, 33년 4개월)
- 길성근 파트장(차장)(강남세브란스병원 사무국 실험과제, 31년 3개월)
- 정충현 파트장(차장)(웅인세브란스병원 사무국 총무팀 총무파트, 31년 3개월)
- 배정수 직원(연세암병원 연세암) 특수간호팀 수술2파트 연세암중앙병실, 41년 7개월)
- 박성희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팀 특수촬영파트, 41년 0개월)
- 박경숙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외래·응급실간호팀 외래고객만족파트 내시경감사실, 40년 6개월)
- 박명화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김성찬

부기원

김미희

서영근

박만우

남진정

김현영

- 노파검사실, 40년 6개월)
- 차용미 직원(치과대학병원 진료혁신팀, 40년 5개월)
- 전한숙 직원(심장혈관병원 진료부 간호팀 심혈관외과계중환자파트, 40년 1개월)
- 박선희 직원(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팀 소아촬영파트, 39년 11개월)
- 윤예섭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응급간호팀 응급간호3파트 당일입원실A, 39년 0개월)
- 신찬숙 직원(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팀 암병원진단검사파트, 36년 0개월)
- 양재선 직원(사무처 시설국 시설관리팀 설비관리파트, 35년 4개월)
- 심용권 직원(세브란스병원 사무국 입원원무팀 입원2파트, 33년 4개월)
- 이지철 직원(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팀 관리파트, 32년 3개월)
- 이환기 직원(세브란스병원 진료혁신센터 환자경험팀 고객소통파트, 32년 2개월)
- 강홍주 직원(감사실 감사팀 감사파트, 31년 3개월)
- 신재명 직원(사무처 시설국 시설관리팀 유지보수파트, 30년 10개월)

명예

- 김미희 팀장(부장)(의학도서관 사서팀, 34년 6개월)
- 서영근 팀장(부장)(재활병원 진료부 경영지원팀, 33년 5개월)
- 박만우 팀장(부장)(연세암병원 기획경영팀, 33년 4개월)

- 남진정 팀장(부장)(간호대학 행정팀, 31년 3개월)
- 김현영 팀장(부장)(사무처 사무국 재무회계팀, 30년 9개월)
- 김기량 파트장(차장)(치과대학병원 기획경영팀, 35년 7개월)
- 지창룡 파트장(차장)(웅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팀, 34년 8개월)
- 원미열 파트장(차장)(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수술간호팀, 34년 2개월)
- 송두현 파트장(차장)(웅인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적정진료관리팀, 33년 4개월)
- 정진경 파트장(차장)(세브란스병원 사무국 보험심사팀, 33년 2개월)
- 안종오 파트장(차장)(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관리실, 32년 2개월)
- 문승호 파트장(차장)(세브란스병원 의학공학과 의공학기술팀, 31년 7개월)
- 송기연 파트장(차장)(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1팀, 31년 3개월)
- 이창훈 파트장(차장)(대외협력처 미디어홍보센터 홍보팀, 30년 8개월)
- 정연학 파트장(차장)(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2팀, 30년 10개월)
- 오현정 파트장(차장)(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1팀, 25년 4개월)
- 이명자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팀, 41년 8개월)
- 박수경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수술간호팀, 41년 5개월)
- 안석훈 직원(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약무팀, 38년 10개월)

- 윤제희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수술간호팀, 37년 0개월)
- 이태림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팀, 37년 0개월)
- 이경아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수술간호팀, 36년 6개월)
- 하승준 직원(사무처 시설국 시설관리팀, 35년 8개월)
- 윤은경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응급간호팀, 35년 5개월)
- 진영희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중환자간호팀, 35년 4개월)
- 강인국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응급간호팀, 35년 3개월)
- 박희중 직원(사무처 사무국 총무팀, 35년 1개월)
- 이성원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1팀, 35년 11개월)
- 송은령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3팀, 35년 11개월)
- 김종화 직원(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팀, 34년 7개월)
- 박정순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수술간호팀, 34년 4개월)
- 박선미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1팀, 34년 4개월)
- 김기남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2팀, 34년 4개월)
- 이순주 직원(연세암병원 연세암외래간호팀, 34년 3개월)
- 연선주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1팀, 34년 1개월)
- 이미정 직원(연세암병원 연세암입원간

- 호2팀, 34년 0개월)
- 정오순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3팀, 33년 9개월)
- 윤동숙 직원(세브란스병원 가정전문간호사실, 33년 5개월)
- 정은선 직원(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팀, 33년 4개월)
- 최순인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외래·응급실간호팀, 33년 3개월)
- 정숙용 직원(세브란스병원 영안팀, 33년 1개월)
- 주정아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약제팀, 33년 11개월)
- 최희영 직원(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팀, 32년 2개월)
- 류미경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2팀, 32년 10개월)
- 조훈준 직원(연세암병원 연세암원무팀, 31년 8개월)
- 신강식 직원(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입원간호1팀, 31년 6개월)
- 이병철 직원(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팀, 31년 3개월)
- 방근배 직원(의과대학 병리학교실, 31년 3개월)
- 고광호 직원(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팀, 31년 0개월)
- 조정숙 직원(연세암병원 연세암입원간호팀, 30년 5개월)
- 이유진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수술간호팀, 27년 8개월)
- 김도연 직원(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수술간호팀, 26년 9개월)

치대병원, '연세-현우 임상치의학자상' 제정 협약

우수 임상 연구자 발굴·지원 연구 위해 1000만원 지원

치과대학병원이 현우문화재단과 함께 우수한 임상 연구자를 발굴하고 치의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세-현우 임상치의학자상'을 제정한다.

치대병원은 지난달 10일 현우문화재단과 '연세-현우 임상치의학자상'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식에는 박원서 치대병원장, 전국진 부원장, 치대 이기준 교수(교정과학)와 현우문화재단 과수일·최정규 이사장 부부, 장순 과승호 씨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과임상과 연구발전에 기여한 학자를 발굴·심사해 '연세-현우 임상치의학자상'을 수여한다. 현우문화재단은 수상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수일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가 활성화돼 있는 반면, 대학 교수 학술 연구를 실질적으로 장려하는 기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은퇴 후 재단을 설립해 교수들을 위한 학술상과 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수들의 창의적인 연구와 세

계를 선도하는 연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원서 치대병원장은 "우수한 임상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자들 연구 의욕을 높여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우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과수일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과 명예교수로, 1967년부터 40여년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내 최초로 최고경영자과정을 도입하는 등 경영학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게시판』

의대 구성욱 교수(강남 신경외과)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6월 28일까지 2년. 의료기기위원회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안정성, 성능,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현재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구성욱 교수는 식약처 차장과 공동위원장을 맡아 약 200명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끌어간다.

의대 박성리 교수(용인 정형외과)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 두싯타니 호텔에서 열린 국제 척추신기술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ISASS AP 2026)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이 개방형 수술과 비교해 임상적 결과와 골유합 측면에서 유사한 치료 성과를 보였음을 밝히며, 고등급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에서 양방향 척추내시경 유합술이 기존 개방형 수술 대안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최소침습 수술법임을 확인했다.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이 지난달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6)'에서 지역 보건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진오 병원장은 1997년부터 약 29년간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

하며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을 맡아 안정적인 병원 운영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2020년 신축 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후에도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와 의료 질 향상, 스마트 병원 구축 등에 힘써왔으며, 2026년 병원장으로 재임해 지속적인 병원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이 지난달 19일 코엑스에서 한독학술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약연답과 함께 10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한독학술경영대상은 한독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국민보건 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발전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 병원장은 AI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과 첨단 의료 기술 도입을 통해 미래형 상급종합병원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 최초 생성형 AI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도입과 첨단 의료 기술 기반 의료 혁신, 사회공헌 활동 및 국제 보건 의료 협력 확대를 통해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

이 병원장은 환자 경험 중심 의료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 고객만족 성과를 달성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치대병원, 교직원 'Fast Track' 운영

진료과 안내부터 예약까지 원스톱 지원

치과대학병원이 교직원 치과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교직원 Fast Track'을 시작했다.

교직원 Fast Track은 어떤 진료과를 찾아야 할지 모르거나 바쁜 업무로 상담과 예약을 미뤘던 교직원을 위한 전용 진료 지원 서비스다. QR코드 또는 Microsoft Teams에서 '치과대학병원 FAST TRACK'을 검색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문의는 치대병원 진료혁신팀이 확인해 증상에 맞는 진료과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예약과 진료 일정

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치아 통증과 시립, 잇몸 질환을 비롯해 임플란트·보철·교정 상담,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수요일 연장진료와 토요일 진료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해 교직원이 업무 일정에 맞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직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접수된 상담 중에는 치아·잇몸 통증과 충치, 치아 파절, 사랑니 발치, 턱관절 통증 등 실제 치료가



필요한 문의가 많았다. 이용자들은 신속한 상담과 편리한 예약 연계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치대병원은 앞으로 이용 현황과 상담 내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교직원 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Fast Track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 심뇌혈관병원 심포지엄 개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1일 병원 대강당에서 심뇌혈관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눴다.

심포지엄에서는 뇌졸중 환자 평가와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첨단 기술들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뇌졸중 환자 평가를 위한 첨단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의대 성민수 교수(강남 신경과)가 답러닝 기반 영상 검사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발표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조명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형중 교수가 첨단 영상을 기반으로 한 미상 뇌졸중 및 조직 시계 전략을 제시했고 의대 허준

녕 교수(신경과학)가 유전체 정밀 의학을 통한 맞춤형 치료 방향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다각적 모니터링과 고도화된 치료 기술이 다뤄졌다. 의대 조승훈 교수(강남 심장내과)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방세동 선별검사



의 임상적 활용을 발표했다. 이어 의대 박진영 교수(강남 재활의학과)는 수술 중 신경감시 등 안전성을 높이는 정밀 모니터링 기법을 밝혔으며 의대 유정우 교수(신경외과)가 신경외과 영역의 첨단 수술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신임교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나다 순〉

의과 대학	 김유나 조교수 산부인과학	 김형우 조교수 내과학	치과 대학	 장성일 조교수 구강생물학	간호 대학	 박세은 조교수	 조한나 조교수	 황연미 조교수	보건 대학원	 한희중 부교수 국제보건학과
--------------	---	---	--------------	---	--------------	--	--	--	---------------	--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2억원



의대 뇌심혈관질환 연구센터 발전기부금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이 최근 의과대학 뇌심혈관질환연구센터 발전기부금 2억원을 전했다.

이번 기부는 2022년 10년간 총 20억원을 약정한 최진민 회장의 5번째 후원금으로, 차세대 의료 체

계 구축과 의학 연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의료원에 꾸준한 후원금을 보내 온 최진민 회장은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설립해 30여년간 저소득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The Great Future 미래발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민 회장의 누적기부총액은 14억 9000만원을 넘어섰다.

구재상 케이클라비스 회장 2억원



의료원 및 의대 뇌심혈관질환 연구센터 발전기부금

구재상 케이클라비스 회장이 최근 의료원 발전기부금 1억원

과 의과대학 뇌심혈관질환연구센터 발전기부

금 1억원 등 총 2억원을 후원했다.

구재상 회장은 “평소 환자 진료와 연구에 힘써 주시는 장혁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후원이 연세의료원 발전은 물론 뇌심혈관질환 분야 연구 역량을 높이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재상 회장 누적기부금은 3억원을 기록했다.

황광원 세림인더스트리 회장 최숙이 성진화학 대표 부부 2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원 및 간호국 교육 발전기부금

황광원 ㈜세림인더스트리 회장, 최숙이(주)성진화학 대표 부부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교육 발전기부금 1억원으로 총 2억원을 후원했다.

병원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황광원 회장, 최숙이 대표 부부와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윤영훈 발전기금사무국장, 이용제 가정의학과 과장, 안경아 간호국장 등이 참석했다.

황광원 회장, 최숙이 대표 부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후원할 수 있어서 기쁘고 친절한 진료



에 항상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김용욱 병원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 THE 미래 발전후원회 위원 황광원 회장과 최숙이 대표 부부의 누적기부금은 10억원이다.

이동균 도경기업 대표 이선혜 이즈테크 대표 부부 2억원

의료원 발전기부금

이동균 도경기업 대표, 이선혜 ㈜이즈테크 대표 부부가 최근 의료원 발전기부금으로 2억원을 기부했다.

이동균·이선혜 대표는 “평소 세심한 진료와 따뜻한 관심으로 환자분들께 힘을 주고 계신 감

염내과 최준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가 더 많은 환자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연세의료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균·이선혜 대표부는 이번 후원을 통해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었다.

고 장명한 미주동창 11만 1969달러



의대 장명한 장학기부금

고 장명한 미주동창(의대 51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장명한 장학기부금으로 11만 1969

달러(약 1억 6239만원)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의

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장명한 동창은 2021년 11월 UB(United Board)와 유산기부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6월 유산을 UB에 기탁했다. 기탁된 자산은 원금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펀드 운용되며, 운용 수익금의 일부가 매년 의과대학으로 지급된다.

해성그룹 1억 2000만원

의료원 발전기부금

해성그룹이 최근 의료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후원했다.

해성그룹은 “의료 발전을 위한 연세의료원 노력에 뜻을 함께하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성그룹은 지난해 1월에도 의료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후원한 바 있다.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 1억원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임상)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가 의과대학정형외과학교실 발전기부금(임상)으로 1억원을 전했다. 남선우 대표는 “박시영 교수님을 비롯해 환자

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정형외과학교실이 한층 도약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선우 대표부는 이번 후원을 통해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었다.

고운희·홍혜경 미주동창 부부 10만달러

의대 신축기부금

고운희(의대 61년 졸), 홍혜경(의대 69년 졸) 미주동창 부부가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10만달러(약 1억 4569만원)를 후원했다.

고운희 동창은 “세브란스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오늘날 세브란스가 이룬 놀라운 발전에 감회가 새롭고, 신축 의과대학에 이번 후원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후배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그 뒤에는 항상 인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브란스인으로 자부심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고운희 동창은 의과대학 졸업 후 세브



란스병원에서 내과 강사로 근무했으며, 1969년 도미해 심장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개업했다. 같은해 홍혜경 동창과 결혼했으며, 홍혜경 동창은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병리학을 전공했다.

배우 변우석 1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배우 변우석 후원자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변우석 후원자는 “아이들이 아픈 상황에서 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환자뿐 아니라 곁에서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부 이유를 전했다.

한편, 변우석 후원자는 2024년에도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3억원을 후원한 바 있다.

분당중앙교회 1억원

의료선교센터 해외의료선교후원금

분당중앙교회가 최근 의료선교센터 해외의료선교후원금으로 1억원을 전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의료 저해택 국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현지 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에 공감해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후원이 해외 의료인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더 많은 환자를 돌

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2024년 의료 저해택 국가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의료원과 총 20억원 규모 후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후원금은 미얀마·캄보디아 의료인 초청연수와 캄보디아 현지 교수와 의·치·간·보건대학원 학생 지원 등 의료 저해택 국가 의료인재 양성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동문회소식

의대 여자동창회, ‘2026 여름 멘토링 모임’

의대 여자동창회는 지난달 7일 알렌관에서 의학과 4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여름 멘토링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여자동창회 멘토링 모임은 의사국가시험과 졸업을 앞둔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의업에 종사해 온 선배들과 만나 진로와 삶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수련병원과 전공

선택, 타 병원 수련에 따른 진로 문제를 비롯해 결혼과 임신·출산 시기, 수련과 육아 병행, 전문의 취득 후 교수·봉직의·개원의 등 다양한 진로 등 앞으로 마주할 현실적 고민에 대해 상담했다. 선배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선배들은 미래 상황과 사람 생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나친 걱정보다는 자

신의 상황과 선호, 능력을 충분히 성찰한 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원하지 않았던 전공이 뜻밖에 적성과 잘 맞거나, 당시 비인기 분야가 훗날 선호 분야로 바뀌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도 소개했다.

이번 모임은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선배들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이어 주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제3기 제중포럼 수료

의대 총동문회 제3기 제중포럼이 지난달 12일 제5차 모임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임경수 동문(92년 졸업)이 박형우 지도교수 저서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제6장 ‘옛 세브란스 부지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박형우 교수와 참석 동문들이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며 연희와 세브란스의 합동 과정 및 세브란스의 역

사적 자산이 갖는 의미를 돌아봤다.

이어 수료식이 진행됐다. 참석 동문들은 지난 다섯 차례의 모임을 통해 제중원과 세브란스, 연희전문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보고 연세의대와 세브란스 뿌리 및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총동문회는 제중포럼을 통해 동문들이 세브란스와 연세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선배들이 지켜온 역사와 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사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선정 SJ건설 대표
고순길 동양산업개발 대표 부부 1억원

의대 신축기부금
여성생명의과학
연구소 기부금

이선정 (주)SJ건설 대표, 고순길 (주)동양산업개발 대표 부부가 최근 의대학 신축기부금 5000만원,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 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

이선정·고순길 대표는 “미래 의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의학 발전을 이루는 데 도



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후원이 의대의 새로운 도약과 여성생명의과학 분야 발전에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원철·주영규 후원자 1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정원철, 주영규 후원자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1억원을 전했다.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환자들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원철, 주영규 후원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

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기부가 환자들 치료에 전념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시화 후원자 1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금시화 후원자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금시화, 이현미 후원자 부부와 금기창 의료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금시화 후원자는 “기준에 후원자인 김기웅, 김진수 아이투비파트너스 대표님을 통해 좋은 뜻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소개받았다”며 “도움이 절실한 환자분들께 경제적으로 조금이나



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환자 치료를 위해 소중한 첫 후원을 진행해주신 금시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이 환자분들을 위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경 오리건치과교정과 원장 1억원

치과대학
발전기부금
(110주년 미래기금)

김옥경 오리건치과교정과 원장(치대 87년 졸업)이 최근 치과대학 발전기부금(110주년 미래기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옥경 원장과 금기창 의료원장, 손흥규 대외협력위원, 정영수 치과대학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옥경 원장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니 참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 수 있었음에 감사



함을 느꼈다”며 “이제는 그 감사함을 보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모교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큰 기부를 결심해주신 김옥경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정영수 학장님과 함께 치과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아이투비파트너스 대표 1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
후원금, 선한사마리아인
사업후원금

김기웅 아이투비파트너스 대표가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5000만원과 선한사마리아인 사업후원금 5000만원 총 1억원을 후원했다.

김기웅 대표는 “제가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 어

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과 조금이나마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분들이 후원금을 통해 무사히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치 환자 가족이 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웅 대표는 2023년 첫 후원을 시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 치료를 돕기 위한 후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종순 씨케이팬아시아씨에프씨 회장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원피부와
의대 정신과학교실
발전기부금

이종순 (주)씨케이팬아시아씨에프씨 회장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와 발전기부금 5000만원, 의대 정신과학교실 발전기부금 5000만원 총 1억원을 후원했다.

병원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장원 (주)씨케이팬아시아씨에프씨 대표이사과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윤영훈 발전기금사무국장, 의대 김재진(강남 정신건강의학과)·노미령(강남 피부과) 교수 등이 참석



했다.

이장원 대표이사는 “아버지인 이종순 회장님과 함께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진료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극히 환자들을 위하는 병원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기고 | 이현경 간호대학장

기억과 감사로 잇는 연세간호 120년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연세간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탁월함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믿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굳건히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길을 열어주신 선배 교수님들, 후배들 성장을 응원해 주신 동문들, 연세간호의 미래를 믿고 뜻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연세간호의 120년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길을 내어준 시간이었습니 다. 김모임 박사님은 평생 대한민국과 세계 간호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하시며 나눔의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연세간호의 교육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 동문 기업가, 모교에서 받은 교육을 오랜 세월 감사히 간직해 온 미주 동문들,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한 83학년 동기들도 모교사랑을 담은 뜻깊은 나눔을 이어주

셨습니다.

평생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는 한 동문은 퇴직을 기념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기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건BF는 미래 간호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연세간호의 비전에 공감해 힘을 보태주었으며,故 이규희 동문의 부군 배병준 회장님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기억을 후배들의 배움과 글로벌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각자의 삶도, 나눔을 결심한 계기도 다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배움과 사랑을 자신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건네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마음이 연세간호의 120년을 지켜온 소중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부 Wall에는 이러한 감사와 존경을 담았습니다. 이곳에 새겨진 이름 하나하나

에는 연세간호를 아끼고 후배들의 미래를 응원한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부Wall은 기부자의 이름을 남기는 곳을 넘어, 우리가 오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이곳을 오가며 자신이 누리는 배움과 기회가 누군가의 수고와 배려 위에 놓여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받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시작한 ‘120 PROJECT’도 이러한 바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120년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선배들이 남겨주신 유산을 앞으로의 120년을 만들어갈 힘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미래 간호인재를 키우고 간호과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교육과 연구가 사람과 사회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도록 보내주신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연세간호의 시작도 미래를 향한 믿음에서 비롯됐습니다. 120년 전 설즈 선교사가 이 땅에 간호학교를 시작했을 당시, 첫해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교육받는 것조차 낯설었던 시대였지만, 설즈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었습니다. 좋은 간호를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지켜낸 작은 시작은 수많은 간호인을 길러냈고, 이들은 병원과 지역사회,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간호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120년 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어주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니다. 이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기부Wall에 새겨진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 안에 담긴 삶과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랑이 후배들의 배움과 도전이 되고, 그 성장이자 다시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힘이 되도록 연세간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연세간호와 함께 걸어주시고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믿음과 나눔을 품고, 이제 연세간호는 새로운 120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보두일 한상훈 대표, 이수연 상무 부부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원·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발전기부금
의료선교후원금

(주)영보두일 한상훈 대표
와 이수연 상무 부부가 최

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병원·심장내과·정신건강의학과 발전기부금, 의료선교후원금 2500만원씩 총 1억원을 후원했다.

병원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한상훈 대표, 이수연 상무와 김용욱 강남세브란



스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훈 대표는 “오래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가족을 치료하는 듯한 세심한 진료에 감사하며, 병원이 필요한 곳에 기부금이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홍완기 미주동창 2만 8089달러

의대 홍석기-완기 장학기부금

고 홍완기 미주동창(의대 67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홍석기-완기 장학기부금으로 2만 8089달러(약 4142만원)를 후원했다.

고 홍완기 동창은 의대 후배들을 위해 만행인고 홍석기 동창(의대 49년 졸)과 공동명의의 ‘홍석기-완기 장학기부금’을 조성했다. 이번 후원금

으로 학부생 3명 대상 두개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편, 홍완기 동창은 세계적인 두경부암 권위자로,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로 재직하며 암 연구와 치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까지 누적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했다.

김승범 에프엔코 대표 3000만원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

김승범 (주)에프엔코 대표가 최근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으로 3000만원

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과 환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승범 대표는 “치료 과정에서 힘 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함과 위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배웅 미주동창 4만 6814달러



의대 이배웅
장학기부금

이배웅 미주동창(의대 62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이배웅 장학기부금으로 4만 6814달러(약 6903만원)를 전했다. 이번 기

부금으로 학부생 5명은 두개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이배웅 동창은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고, 앞으로 의료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배웅 동창은 현재까지 누적 3억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했다.

조운형 세화이엔씨 회장 5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조운형 세화이엔씨 회장이 최근 용인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전하며 약정액 1억원을 완납했다.

조운형 회장은 “용인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기부가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발 세무사 5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남동발 세무법인 중부 세무사가 최근 용인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전하며 약정액 1억원을 완납했다.

남동발 세무사는 “이번 기부가 진료 공간 확충과 의료 환경 개선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 3000만원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최근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발전기부금(빛담)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정대현 부회장은 “환자들이 치료의 전 과정에서 존중받으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의 가치에 공감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후원이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를 실천하는데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